2026.11.01.

출장 결과 보고

「수탁과제 2026인차이나포럼운영」

국외 조사 보고

인천연구원
THE INCHEON INSTITUTE

「수탁과제 2026인차이나포럼운영」
국외 조사 보고

Ⅰ 출장개요

■ **출장 목적**

○ 제9회 한중FTA 지방경제협력 공동위원회 참석 및 산업시찰 통해 웨이하이시 공무원 및 공공기관과 협의하여 지역 정책·산업 동향을 파악하고, 한중FTA지방경제협력 시범지 사업과 인차이나포럼의 협력의제를 발굴함

■ **출장 기간: 2026.10.28.(수) ~31.(토) / 3박 4일**

■ **출장 국가 및 도시: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시(다급)**

■ **출장자: 김수한**

■ **담당업무:**

출장자	직급	부서	업무 내용
김수한	선임연구위원	경제산업연구부	제9회 한중FTA지방경제협력 공동위 참석 및 협력 의제 검토 웨이하이시 주요 정책·산업 동향 조사 및 관계기관 협의 2027년 인차이나포럼 의제 발굴 및 협력 방안 등 논의

■ **출장일정:**

일 자	지 역	시 간	주 요 일 정	비고
10/28 (수)	인천 → 웨이하이	오전	인천→웨이하이 (7C8501) 10:30-10:50	(7C8501)
		오후	웨이하이시 시장 및 주요 간부 접견	
			주중인천대표처 개관 10주년 프로그램 참석	
10/29 (목)	웨이하이	오전	웨이하이 산업단지 및 주요 기업 시찰	
		오후	한중 지방경제협력 공동위원회	
10/30 (금)	웨이하이	오전	인천시 - 주중인천대표처 점검 활동 참관	
		오후	웨이하이 상무국 관계자 정책 간담회	
10/31(토)	웨이하이 → 인천	오전	공항이동	(7C8502)
		오후	웨이하이 출발 → 인천 도착 (7C8502)	

Ⅱ 출장 결과

1 인천-웨이하이 한중FTA 지방경제협력 공동위원회

■ 개요

○ 일시 : 2026. 10. 29.(목) 15:00~16:30

○ 장소 :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시 란하이위화호텔

○ 참석 : 인천시 국제협력과, 에너지정책과, 신재생에너지과, 인천상공회의소, 인천연구원 및 웨이하이시 부시장, 상무국 등 관계기관

○ 목적 : 한중 FTA 지방경제협력 시범도시인 인천과 웨이하이 간 기존 협력 성과를 점검하고 산업·무역·교통물류·과학기술·인문 분야 신규 협력의제 논의



〔그림 1〕 한중FTA 지방경제협력 공동위원회 ('26.10.29)

■ 주요 내용

○ 산업·에너지 : 전기·기계장비 기업 매칭, 반도체 부품기업 교류, 에너지전환 및 태양광 정책 협력, 국제전시회 상호 참가

○ 무역·공급망 : 공급망 위기대응 핫라인 출범, 대체 소싱 협력, 통관 간소화 및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개선

○ 교통물류 : 인천-웨이하이 항공노선 증편, 웨이하이 콜드체인 인프라 활용 및 환적기지 구축 제안

○ 과학기술 : 중소기업 기술이전·사업화, 기업지원 정보 공유 및 기업 수요 매칭

○ 인문·관광 : 공동 관광상품 개발, 팸투어 및 관광객 유치, 재외동포 교류 확대

○ 공동연구 : 한중 FTA 지방경제협력 10년 성과 평가 및 미래 협력과제 발굴을 위한 공동연구 제안. 인천연구원은 연구재원 확보, 정책적 활용 및 관계기관 참여 필요성 강조

2 주중인천대표처 10주년 기념식 및 운영 현황

■ 개관 10주년 기념식

○ 일시 : 2026. 10. 28.(수)

○ 장소 :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시

○ 참석 : 인천시 및 웨이하이시 관계자, 현지 기업인·바이어 등 약 130명

○ 주요 내용

- 대표처 개관 10주년 기념 및 인천-웨이하이 경제교류 성과 공유
- 현지 정부·기업·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 강화 및 향후 경제협력 확대방안 교류



〔그림 2〕 인천관 개관 10주년 기념식 ('26.10.28)

■ 대표처 운영 현황 및 점검

○ 개관 : 2016년 11월

○ 운영 규모 : 직원 4명, 시설면적 596.32㎡

○ 주요 기능

- 인천기업 제품 전시·홍보 및 현지 바이어 발굴
- 수출상담, 무역정보 제공 및 인천기업 중국시장 진출 지원
- 인천-웨이하이 경제협력 및 유관기관 간 교류 지원

○ 주요 실적(2025년)

- 인천기업 84개사 제품 전시
- 수출계약 152건(103억 원), 수출상담 145건
- 방문객 11,434명

○ 현장 점검

- 대표처 운영체계 및 인천기업 제품 전시·홍보시설 확인
- 기업지원 사업 및 현지 협력 네트워크 운영 현황 파악
- 공급망 협력, 기업 매칭 등 신규 경제협력 사업과 대표처 기능의 연계 가능성 검토

3 중국 웨이하이 경제산업 시설 시찰

○ 일시 : 2026. 10. 29.(목)

○ 목적 : 주요 산업시설 시찰을 통한 지역 산업 현황 파악 및 인천과의 협력 가능성 검토

○ 내용 :

① 홍린전력(泓淋电力) — 전선·전기차 부품 제조기업

- 1997년 설립, 2023년 선전증권거래소 상장
- 전원 케이블 및 특수 전선·케이블 연구개발·생산 전문기업
- 가전·컴퓨터용 전원선, 전기자동차 충전 연결제품, 산업설비 및 선박용 특수 케이블 등 생산
- 전선·케이블 제조 기반의 전기자동차 관련 제품 생산 및 사업 다각화 현황 파악
- 전기차 부품·전기장비 분야 산업 동향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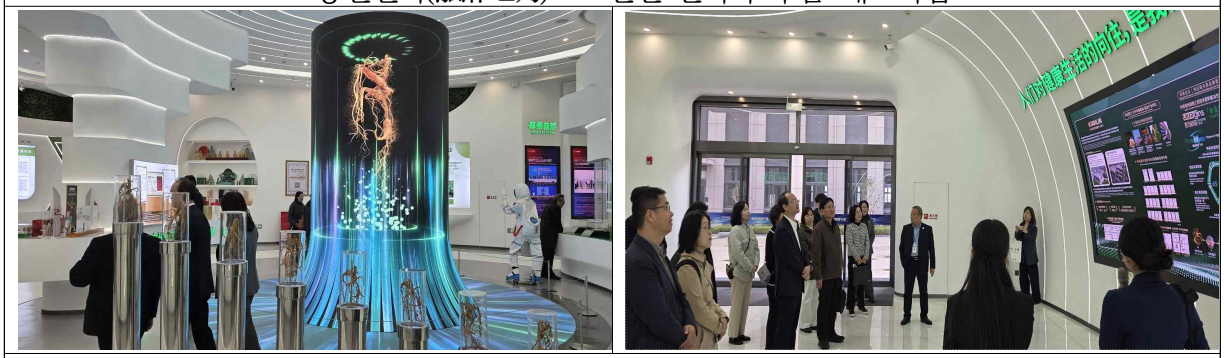
② 안란그룹(安然集团) — 인삼·바이오 기업

- 웨이하이 소재 건강산업 및 바이오기술 기업
- 나노기술과 식물줄기세포 배양기술 등을 활용한 건강·미용 관련 제품 개발
- 백두산 야생인삼의 조직·세포 배양기술을 통한 인삼 원료 대량생산 기술 확보
- 인삼 배양기술 및 관련 생산시설 현황 확인
- 인삼 원료를 활용한 건강식품·화장품 등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현황 파악
- 강화인삼 등 인천 지역 특산자원과의 연계 가능성 검토

- 백두산 인삼의 배양기술을 활용한 의약품·건강식품·화장품 등 제품 개발 및 생산시설 시찰
- 인삼 원료의 고부가가치 바이오제품 개발 및 산업화 현황 파악
- 강화인삼 등 인천 지역 특산자원과의 산업협력 가능성 검토



홍린전력(泓淋电力) — 전선·전기차 부품 제조기업



안란그룹(安然集团) — 인삼·바이오 기업

〔그림 3〕 웨이하이 산업 시찰 ('26.10.29)

4 웨이하이 시정부 시장 및 주요 관계자 정책 간담회

■ 웨이하이 시장 및 주요 간부 접견

○ 일시 : 2026. 10. 28.(수)

○ 장소 : 중국 웨이하이시 영빈관

○ 참석 : 웨이하이 시장 및 주요 간부, 인천시 국제협력과장 등 방문단

○ 내용 :

- 웨이하이시장은 한중 FTA 2단계 협상을 계기로 인천-웨이하이 간 경제협력 기제를 고도화하고, 신선식품 통관, 서비스무역, 복합운송 및 항공노선 확대 등 실질적 협력 강화를 제안함
- 기업·대학 간 교류와 문화·관광·체육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 확대 필요성을 강조함
- 웨이하이를 중국 전역에 한국의 문화·상품·관광을 소개하는 종합 교류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함



〔그림 4〕 웨이하이 시정부 접견 ('26.10.28)

■ 웨이하이 상무국 FTA촉진센터 센터장 및 연구진 간담회

❍ 일시 : 2026. 10. 30.(금)

❍ 장소 : 중국 웨이하이시 상무국 인근 회의실

❍ 참석 : 웨이하이시 상무국 FTA촉진센터 센터장 및 연구진 등 4명

❍ 내용 :

- 한중 FTA 지방경제협력 시범도시 지정 이후 인천-웨이하이 협력의 추진 경과와 주요 성과 및 한계에 관한 의견 교환
- 중앙·지방정부 및 FTA촉진센터의 역할, 협력사업 추진체계와 정책적 여건에 관한 현지 조사
- 기존 일반 교류사업과 FTA 특화 협력사업의 구분, 지방정부 권한 및 제도적 제약에 관한 문제의식 공유
- 양 도시의 산업적 특성과 기업 협력 가능성 논의. 특히 강화인삼농협 등 인천 지역자원과 식품가공 분야에 관한 의견 교환

5 종합 및 시사점

■ 한중 FTA 지방경제협력 사업의 실효화

○ 제9회 공동위원회는 인천시가 에너지전환 및 태양광 보급 정책 교류를 주도적으로 제안하고, 인천상공회의소를 통해 한중 양국 정부 차원의 협의가 필요한 원산지증명서 PDF 발급 허용 및 가공식품 검역제도 개선을 선제적으로 의제화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임

- 특히 공급망 핫라인 출범은 기존 협력기제를 활용하여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공동 대응하려는 구체적인 시도로 평가할 수 있음

○ 그러나 상당수 의제가 정보 교환이나 일반적인 교류 확대에 머물러 있으며, 제안 내용과 후속 조치의 구체성이 부족함. 특히 중국 측에 비해 인천시의 의제 준비와 논의 집중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여러 담당 부서의 답변이 대독으로 진행되는 등 실질적인 정책협의에 한계를 보임

○ 공동위원회 운영을 신규 의제 제안 중심에서 기존 합의사항의 이행 점검, 제도개선 과제 발굴, 공동 정책건의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기존 사업을 '해온 것,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 하면 좋은 것, 하면 나쁜 것'으로 구분하여 추진 필요성과 실효성 검토
- 통관·검역·복합운송 등 중앙정부 권한에 속하는 사안은 양 도시 공동의 대정부 정책건의 의제로 발전시키고,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정책협의와 제도개선 요구를 지속적으로 관리

○ 제1~9회 공동위원회 의제와 추진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일반적인 도시 간 교류와 한중 FTA 시범도시 특화사업을 구분하고, 향후 한중 FTA 2단계 협상 및 지방경제협력의 제도적 개선에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인천-웨이하이 지방외교의 전환

○ 웨이하이시는 한중 FTA 시범도시의 정책적 위상과 친한국 정책환경을 활용하여 대외협력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음. 인천 역시 기존의 교류사업 유지에서 벗어나 지역 발전전략과 국제정세 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적 지방외교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중국과 한국의 지방정부는 행정권한과 정책 추진체계, 중앙정부와의 관계에서 구조적인 차이가 있음. 웨이하이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단순히 모방하기보다 양 도시의 정책적 비대칭을 고려하여 인천이 주도할 수 있는 협력영역을 발굴해야 함

- 양 도시의 산업구조·입지계수·국가 내 위상과 지방외교 추진체계를 비교하고, 인천의 정책적 자율성과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 연구

○ 인천시의 ABC+E 신산업 전략과 웨이하이의 산업·정책 여건을 연계하여 다음과 같은 특화 협력의제

검토 필요

- AX 통관 시범지 : 인천공항·항만과 웨이하이의 교통물류 기반을 활용한 AI 기반 통관·물류 혁신 및 관계기관 공동 시범사업 검토
- 해양바이오 : 양 도시의 해양자원과 바이오 연구기반을 활용한 공동연구 및 기술협력 의제 발굴
- 문화콘텐츠·관광 : 인천 차이나타운과 산둥 출신 화교의 역사적·인적 연계를 활용한 문화콘텐츠 개발 및 의료·웰니스·실버휴양 등 고부가가치 특수목적 관광 협력
- 에너지 : 양 도시의 해상풍력 정책·산업 여건을 고려한 MRO 기술·인력·산업망 연계 가능성 검토

■ 주중인천경제무역대표처 운영 및 기능 개선

❍ 주중인천경제무역대표처는 개관 10주년을 계기로 해외대표처의 설치 목적과 인천시 국제협력 전략에 부합하도록 정책교류·경제협력·공공외교 기능의 적정한 역할과 운영체계 재정립이 필요함

❍ 현행 공무원 파견 중심의 대표처 운영방식이 갖는 성과와 한계를 면밀히 평가하고, 전문성과 지속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 검토 필요

- 공무원 파견의 정책협의·행정연계 효과와 함께 순환보직에 따른 전문성 축적, 현지 네트워크 지속성, 운영비용 및 사업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경기도 경기비즈니스센터(GBC)와 같은 전문기관 중심의 해외거점 운영사례를 비교하고, 공무원 파견·전문기관 운영·현지 전문인력 활용 등을 결합한 운영방식 검토

❍ 지역 대학·기업과 연계한 실질적 공공외교 및 미래 국제교류 인재 육성의 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제안할 수 있음

- 인천 소재 대학 재학생 중 웨이하이에서 교환학생·어학연수 등으로 체류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대표처 현장실습(인턴십) 프로그램 도입 검토
- 국제교류 행사, 현지 정책·산업 조사, 통번역, 홍보 등 실무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대학의 현장실습 과정 및 기업 교류사업과 연계
- 별도의 비자·주거 지원 부담을 최소화하되 현지 체류자격과 실습 허용 범위를 확인하고 학습장려금 지원방안 검토

■ 인차이나포럼 2027 의제 – 블루웨이브, 한중 지방협력의 새 물결

❍ 2026년 인차이나포럼 창립 10주년 성과를 바탕으로 2027년에는 「블루웨이브-한중 지방협력의 새 물결」을 중점 의제로 설정하고, '인천이 여는 새로운 한중 도시외교의 기준'이라는 방향에서 미래협력 의제와 정책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2027년 인천-칭다오 자매도시 관계 격상 추진, 인천-웨이하이 공동위원회, 인천-산둥성 협력체계 등을 연계하여 산둥성 주요 도시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전략적으로 활용

- ❍ 기존 협력의 성과를 토대로 인공지능·생명과학·문화콘텐츠·에너지 등 미래협력 분야에 대한 공동 의제 발굴
- ❍ 도시별 산업·정책 특성과 협력 수요를 조사하여 인천 중심의 다층적 한중 도시협력 구상 마련


THE
INCHEON
INSTITUTE